

논문접수일 : 2013.03.31

심사일 : 2013.04.13

게재확정일 : 2013.04.25

가구디자인에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연구

-연구자의 가구디자인 작품을 중심으로-

Korean Characteristics on Furniture Design

-Based on examples of Author's works-

김진우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Kim, Jinwoo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Konkuk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목적과 배경
- 1.2 내용과 방법

2. 한국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 한국성의 용어적 정의
- 2.2 근현대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3. 전통공간의 사례를 통한 한국성 도출

- 3-1. 형태
- 3-2. 공간구성
- 3-3. 환경과의 관계

4. 연구자의 작품

- 4-1. 작품에 접목된 한국성
- 4-2. 작품 진행과정
- 4-3. 결과물

5. 결론;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가구디자인에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고찰에 관한 것이다. 연구의 사례로는 연구자의 2008년 작품 세 점을 선정했다. 이 작품들은 개념설정 단계에서부터 한국성을 접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디자인의 선진국들과 차별화하고 우리의 정서와 환경에 적합한 가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인에게 있어 가구란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서와 생활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국적 가치를 발견해 내고 이를 다시 현대적 디자인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조형특성을 발췌하여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작품에 접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자에게 있어 한국성이라는 개념자체가 막연하고 불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연구방법에 있어서 한국성에 대한 용어적 정의와 국내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표출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선행했다. 한국전통공간에 나타난 형태, 공간구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표출하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전통공간에 나타난 한국성을 도출했고 이 중에서 다음 세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작품을 진행했다. 첫째,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탈기교적 아름다움, 둘째, 가변적 구조와 형태의 실현, 셋째, 가구 스스로 공간을 형성하는 가구이다. 이론적 배

경 및 고찰과 함께 실제 진행됐던 작품의 전개과정 및 결과물을 제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에 대해 요약 서술했다.

주제어

한국성, 가구디자인, 전통공간, 공간적 가구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Korean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furniture design. Three works created in 2008 among author's work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Those works started with the purpose to express the Korean characteristics from the stage to establish the concepts. For designing the furniture which was differentiated from that in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design and satisfied the emotion and environment of Korea, the basic question "what furniture means for the Korean?" should be investigated and deliberated at first. In that process, we should identify the Korean value existing in our emotion and life and develop it to the modern design. However, it was not easy to identify and interpre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sign and apply them to the modern works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works. It's because that the concept of 'Korean characteristics' was obscure and vague for the author.

As the methodology, the preliminary research was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Korean characteristics expressed on designs in Korea and the terminology on Korean characteristics. The Korean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from the traditional space with focus on the mental values expressed by traditional space as well as forms in Korean traditional space, spatial structure and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n the basis of the Korean characteristics identified, the works were created using three concepts; beauty which is not excessively refined, variable structure, and furniture which creates space. This paper is the thesis on the works so that it presented the creative process of works and final products after establishing the concepts and then summarized the theories on Korean characteristics observed in furniture design.

Keyword

Korean characteristics, Furniture design, Korean Traditional Space, Furniture as Space

1. 서론

1.1 목적과 배경

본 논문의 목적은 가구디자인에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고찰과 분석이다. 연구의 사례로는 연구자의 2008년 작품 중 세 점을 선정했다.

이 작품들은 개념설정 단계에서부터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첫째는, 단순히 앉거나 쓰거나 수납하는 등 제품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소위 공간적 기능으로 사용가능한 가구디자인의 실현이었고, 둘째는, 한국적 조형특성을 발췌하여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성이 접목된 가구디자인의 사례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한국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했다. 사실 한국성이라는 것은 억지로 주장하거나 추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묻어나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게 있어 한국성의 개념은 지극히 막연하고 불분명한 존재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용어적 정의가 필요했다.

이어서 한국 전통공간의 형태, 공간구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표출하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전통공간에 나타난 한국성을 도출했다. 가구디자인에 대한 사전고찰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가구가 아닌 전통공간을 살펴본 이유는, 연구자가 목표로 한 가구가, 20세기 초반 미스 반 데 로헤(Mies Van der Rohe)나 르 꼬르뷔제(Le Corbusier)가 실현했던 건축적 요소(벽체, 기둥, 바닥 등)가 결합된 가구의 개념, 혹은 1970년대 베르너 팬톤(Verner Panton)이나 조 콜롬보(Joe Colombo), 혹은 우치다 시게루(Uchida Shigeru)가 실험했던, 가구가 독자적으로 소규모의 공간을 형성하는, 즉 공간적 개념의 가구였기 때문이다.

우리 옛 건축에는, 반쯤 열리고 반쯤 닫혀 있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는 공간들,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도 않고 주변의 환경에 묻히지도 않으면서 상생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1) 르 꼬르뷔제와 미스 반 데 로헤는 공간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높이고자 가구를 벽체의 일부로 편입시킨 고정식 가구를 통해 건축과 가구의 경계를 없앴으며, 베르너 팬톤, 조 콜롬보, 우치다 시게루는 바닥, 벽, 천정이 존재하는 가구인 판타지 랜스케이프(Fantasy Landscape), 나이트 셀(Night Cell), 다실리즈(Teahouse)를 통해 가구와 공간을 동일시했다. 이와 같이 건축적 요소(벽체, 기둥, 바닥 등)와 결합하거나 독자적으로 소규모의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가구를 공간적 개념의 가구라 정의했다. 김진우, 공간적 가구 중에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p27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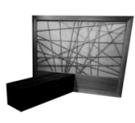
존재한다. 그들은 건축임과 동시에 실내이며 실내공간임과 동시에 가구이기도 한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결과물이었으나,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공간이나 디자인의 개념으로 진화한 사례는 미약했다. 길고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유성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현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전통이 실종되었거나 혹은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왜곡되고 뒤튼린 디자인의 사례가 많다고 느꼈다.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조형특성을, 표피적이 아닌 본질적으로 발췌하여 재해석하고, 우리와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이웃나라 중국, 일본의 디자인과 차별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라 하더라도 특정지역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의 가치와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조형과 색감의 미학이 연구자의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드물게나마 한국성을 접목한 디자인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개발에 들어갔다.

1.2 범위와 방법

가구디자인에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연구의 사례로 연구자가 2008년 박사학위 청구전을 위해 제작했던 작품 중 세 점, Bench with Screen 1, Bench with Screen 2, Bench with Screen 3을 선정했다. 이 작품들은 <Furniture as Space>라는 대 주제 하에 제작했던 총 7작품 중의 일부이다.

[표 1] 연구의 사례로 선정한 연구자의 작품

작품명	Bench with Screen 1	Bench with Screen 2	Bench with Screen 3
사진			

본 연구의 내용 및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내용과 방법을 정리했다. 2장에서는 한국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한국성을 용어적으로 정의했고 국내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의 사례에 대해 서술했다. 이 때 1960년대 이후 국내 건축과 실내건축 분야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이 시기 김중업의 프랑스 대사관과 김수근의 공간사옥의 사례로부터 비로소 전통 혹은 한국성의 논의와 표현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전통공간의 사례조사를 통해, 한국성을 크게 형태적 특성, 공간 구성적 특성, 환경과의 관계로 도출했다. 한국성을 접목한 가구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가구에 대한 고찰에 앞서 전통공간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행한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사례로 선정한 연구자 작품의 개념이, 책상, 의자, 수납장 등 제품디자인으로서의 가구가 아닌, 공간적 개념의 가구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건축이나 실내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되고 교체될 수 있는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가구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진행했으므로, 한국성을 표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 전통공간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3가지 개념, 즉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아름다움, 가변적 구조와 형태, 가구 스스로 공간을 형성하는 가구 등을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작품의 전개과정과 결과물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가구디자인에 표현된 한국성에 대해 서술했다. 5장에서는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2. 한국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한국성의 용어적 정의

1980년대 이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의 예술 전반과 문학, 의복 등 상당한 분야에 있어서 한국성의 표현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김경재, 1999) 본 연구 역시 연구자가 가구디자인 작품에 한국성을 접목해 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무엇보다 전통적인 것(전통성)과 한국적인 것(한국성)에 대한 용어적 정의가 필요했다.

전통은 현재를 존재하게 하는 원초적 바탕이지만 현재에 재현되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는데(김경재, 1999), 이는 그 동안 전통이라는 개념을, 주로 모방과 복제라는 미학적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신선감이 상실되면서, 한국성 표현의 양상은 형태에서 공간으로, 즉 피상적 문제에서 내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으로 전환됐다.(김경재, 1999) 이를 토대로, 전통에 내재된 기본개념 및 구성 원리를 추출해내고 현대적 표현과정 및 접근방법을 재창조하는 방법과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정 시대의 작품이 가장 그 시대다운 양식을 투영해 낼 때, 추후 우리의 전통계승과 관련한 올바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주혜, 2002)

이렇듯, 전통성과 한국성 두 개념은 다수의 선행 논문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 과거의 전통적 개념(전통성)이 현 시대에서도 이해가 되며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개념을, 전통성과 차별화하여 한국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근현대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본 장에서는 1960년대 이후 건축, 실내건축,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논의되고 표출된 한국성을 시대적으로 살펴봤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김종업의 프랑스 대사관과 김수근의 공간사옥 등은 한국성 표현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 즉 과거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깨달음, 현재 상황으로의 주관적 재해석 그리고 현대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 독단적 미래로서의 전통(박항섭, 1997)을 지양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 선례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대사관에 표출된 지붕형태의 한국적 조형성과 공간사옥에서의 한국적인 스케일감과 마당이라는 공간요소의 효율적 활용은 두 건축가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정신과 더불어 현대 한국건축에서의 한국성 표현에 대한 하나의 전통이 되고 있는 것이다.(김경재, 1999)

이후 건축계에서는 서구건축과의 차별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전통 공간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우리 문화의 원형을 도출하려는 '전통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유영희, 2005) 한국성을 표방하는 각종 대형 건축물들, 즉 전주시 청사,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올림픽 주경기장 등이 정치, 경제의 논리 속에서 건설되었다.(김경재, 1999) 이 때 한국성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 존재였으며(김경재, 1999) 한국성의 탐구는 곧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일이었다.(강혁, 1997)

1990년대 이후 실내디자인 작품에는 다소 구체화된 한국성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주혜는 이 당시 한국적 표현특성을, 공간의 연속성과 분절성, 지각적 측면의 체험적 위계성, 상대적 사이 개념의 상징적 전이성, 역동적 표현에 의한 공간적 중층성, 공간 대비 개념의 상보적 이완성, 네가티비즘²⁾으로의 허에 의한

2)네가티비즘(Negativism)이란 부정주의, 마음에 있어 반대를 의미하여, 음적, 부정적, 부적(眞的) 개념으로, 표현에 있어 비교 대상으로서 그 하나가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관계를 맺고 있는 무언가와 함께 비교 적용된다. 우리 주변의 많은 공간들을 살펴볼 때, 기능적이거나 형태적 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정(正-positive)적인 공간에서 부(眞-negative)적인 성격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건축의 형태나 영역의 결정방법, 공간과 공간, 공간과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주혜,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성의 공간

공간적 표현 등으로 도출했다.(유지혜, 2002에서 요약 정리)

자율성과 개인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나 소규모 설계집단을 중심으로 과거의 현대적 수용에 그치지 않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대와 미래의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형으로의 전통을 탐구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양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내재해 있는 주거건축에서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도와 실제적 작품들은 한국성이 갖는 고유성과 보편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 태도였다.(김경재, 1999) 소규모 설계집단에 의해 특성화된 이러한 개념들은 이전의 한국성 추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가시적, 조형적 측면의 집중이라기보다는 공간성의 재해석에 따른 추상적 개념(박향섭, 1997)을 바탕으로, 마당과 채와 방의 구성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 위계성, 다목적성, 중첩성(김정신, 1997) 등 한국적 공간 이미지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여 적용(김경재, 1999)시킨 것이다.

2000년대 미니멀리즘의 등장과 함께 현재 한국건축에 나타난 이일훈의 '채나눔의 방법론', 민현식의 '비움과 침묵', 백문기의 '골목길', 우경국의 '관계, 흐름, 건축' 등(이창운 외, 1999, 36)이 표출하고 있는 미니멀리즘적 분위기와, 건축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니멀리즘으로 읽히고 있는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이나 김인철의 '없음의 미학'(이창운 외, 1999, 36) 등의 사례는 한국성이라는 개념이 분석적, 해석적 관점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현대공간에 나타난 다양한 한국성의 실험과 실험은 전통문화의 유기적 생명력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쇠퇴해 버린 현시대에 있어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원형이 될 수 있다. 한국성에 대한 올바른 표출을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본질과 현상 등에 입각하여 전통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전통과 현대 및 미래간의 상관개념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 작업을 지속하여야 하며, 한국적 정서의 현대적 시각화를 위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정신이 요구된다.(김경재, 1997)

3. 전통공간 사례를 통한 한국성 도출

본 장에서는 한국 전통공간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 선행논문 고찰을 통해 전통공간에 나타난 한국성을 형태적 특성, 공간의 구성, 환경과의 관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p27에서 재인용

3-1. 형태적 특성

3-1-1. 탈기교성

우리 전통공간의 아름다움 중에서 가까운 일본의 그것과도 가장 차별화된 것은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탈기교적 아름다움이다. 정교하게 다듬고 손질하고 대칭을 맞추어 내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편안함이 주는 무뎉뎉한 매력이 한국적 정서에 훨씬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이어령 선생의 말을 빌면 이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질의 문제이다.

이러한 탈기교적 아름다움은 전통공간의 서까래, 기둥, 보, 창호의 틀 등을 통해 조형적으로 표출됐다.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재료들, 정밀하게 모서리를 맞추지 않은 창틀이나 문틀 등을 통해 세밀한 기교나 마감보다는 부드러운 곡과 순박함,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추구했다.



[그림 1]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탈기교적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는 전통공간의 사례

3-1-2. 비대칭적 구성

방의 한 벽면에는 수직적인 다락문과 수평적인 벽장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비대칭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벽체는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인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구조체 사이의 분할된 면들이 비대칭으로 드러난다. 즉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인방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회벽이나 창호가 설치됨으로써 서로 다른 재료의 대비에 의한 면 분할이 이뤄지며 이러한 비대칭적 구성은 단조로운 방안에 생기를 준다. 벽면의 비대칭적 구성이나 은은히 비치는 창호의 살은 벽면으로 구성된 실내공간의 면적인 통일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온화하고 차분하며 정적인 가운데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한국적인 공간의 조형적 특성이다.(박영순 외, 1999)



[그림 2] 비대칭적 구성을 보여주는 전통공간 내부의 가변적 벽체

3-1-3. 불확정성

서양에서 사용하는 의자나 침대는 한국전통 공간 속의 방식이나 이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가구이다. 단지 서양의 의자와 침대와 달리 방식과 이불은 사용자 스스로 위치나 수량을 결정할 수 있고 접어서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벽체는 미닫이 혹은 접어 올리는 문으로 되어 있어 벽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밀거나 접음으로써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외부공간과의 통합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가변적 개념은 기능의 변화나 복합기능을 요구하는 현대건축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으며(유영희, 2005),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과 가구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양에서는 후기 미니멀리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반형태(Anti-Form)라는 글을 계기로 하여, 물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형태를 지향함으로써 결정된 형태를 벗어나 우연과 비결정성을 허용하였지만, 한국인에게 공간과 가구가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원론적인 개념이다.(김진우, 2009)



[그림 3] 이동, 변형, 수납이 가능한 한국의 가구와 벽체

3-2. 공간구성

3-2-1. 전이공간을 통한 점층적 공간구성

한국의 전통공간에는 바깥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이어지는 등 프라이버시를 점층적으로 조절하는 공간구성이 존재했다. 건물 하나하나의 구성보다는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과 위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구성방법에 더 심혈을 기울였는데(안영배, 1988) 이 때 각각의 단위공간은 기능별로 분절, 독립된 듯 하지만 전체적인 위계적 질서 속에 연속되어 형성되며, 이는 몇몇의 공간이 일정한 축을 통해 중속적으로 관계를 갖거나 또는 이들의 중심적 공간으로 연결된다.(정무웅, 1989)

또한 이들 사이에는 마루, 툇마루, 정자, 마당, 그리고 건축과 담장 사이 등과 같은 다양한 전이공간이 있었다.(유영희, 2005) 전이 공간이란, 전이라는 개념을 공간에 적용한 것으로서, 시간경과에 따른 관찰자의 이동을 전제로 하여 관찰자가 공간에서 성격이 다

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체험하게 되는 시각적, 물리적,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 주기위해 삽입되는 매개 공간이다. 전이공간은 각 공간들의 마디로서 전체공간의 리듬과 질서를 형성하며,(유영희, 2005) 주 공간으로의 진입과정을 길게 하여 일련의 연속적 공간 체계를 이룬다.(이지연, 2000) 이처럼 한국의 전통건축은 각각의 공간들이 여러 개의 경계에 의해 끊임없이 분리되면서도 유기적인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그림 4] 전이공간을 통한 점층적 공간구성의 사례

3-2-2. 중복과 중첩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복과 중첩의 개념은, 벽의 유무 혹은 개구부의 개폐여부에 따라 전개되는 내외부 공간의 시각적 관계, 즉 비어 있지만 시각적 틀을 구성하는 중간영역의 투명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주혜, 2002)

중간영역의 투명성은 한국 전통공간에 나타난 모퉁이가 열린 공간으로 설명된다. 모퉁이가 열린 공간은, 기하학적인 완결성이 강한 폐쇄적 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의 모서리를 트이게 하여 공간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폐쇄적인 사각형의 중정형 마당에 비해 이들은 공간을 투명하고 개방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여 편안한 느낌을 제공한다.(유영희, 2005)

건물과 건물 사이, 지붕과 벽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로 우연처럼 내다보는 풍경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고 이는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건축과 건축 간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건축들의 집합, 건축들과 자연이 혼재된 관계에 의한 풍요로움 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중복과 중첩을 통해 사이로 보는 맛이다. 이는



[그림 5] 중복과 중첩에 의해 생겨난 '사이로 보는 공간'

몇 개의 중복된 틀을 거쳐서 깊이를 갖게 하고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

로 아직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인 장치이다.(최부득, 2001)

3-3. 환경과의 관계

3-3-1. 자연과의 상생 및 순응

인간, 지구, 우주는 하나라는 생각은 동양사상의 음양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한국 전통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인간은 소유주이며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인 통합체이므로 인간은 자연을 변형시키기 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 한국의 전통디자인은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자연환경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꾀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유영희, 2005)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상생관계에 있다. 수려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정자 하나가 결코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림 6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속에 잠겨 그 속에 잠겨 사라지지도 않으며 자취도 없이 사라지지도 않는, 그래서 그 자연의 가치를 한껏 살려내고 물질적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 그러한 상생의 건축놀이가 우리 건축의 편안함 즉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이다.(최부득, 2001)



[그림 6]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 속에 잠겨 사라지지도 않으며 상생, 순응하는 정자의 모습

3-3-2.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각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주변의 자연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차경'이라는 공간적 장치를 가능케 했다. 일본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외부환경을 실내에서 관망하고자 했고, 일본은 그 자연을 축소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실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차이점이 있다.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시각을 중시한 우리 조상들은 집 내부에 최소한의 인공적 요소를 가미하는 대신 이미 잘 꾸며진 자연을 집안에서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림 7] 집안에서 자연 바라보기

결국 차경의 궁극적 의의는 자연경관의 도입을 통해 결국 주체와 객체, 허와 실,

그리고 유한에서 무한으로 나아가 감상자에게 감동을 주는 의경의 경지로 이끄는 데 있었으며(이영미 외, 2007), 이처럼 조상들은 내부에서 자연을 조망하면서 자신을 수양하고자 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주변의 자연과 일체화되어 자연으로 귀의하려는 겸허한 자세(이영미 외, 2007)를 취했다.

[표 2] 전통공간 사례를 통해 도출된 한국성

형태적 특성	탈기 교성	표현 매체	서까래, 기둥, 보, 창호의 틀
		표현 방법	재료를 지나치게 다듬지 않음, 모서리를 정밀하게 맞추지 않음
		표현 특성	부드러움, 순박함, 자연스러움, 소박함
	비대칭적 구성	표현 매체	다락문, 벽장문, 기둥, 인방, 회벽, 창호
		표현 방법	비대칭적으로 구성된 수직적인 다락문과 수평적인 벽장문, 구조체 사이의 분할된 면
		표현 특성	정적인 가운데 느껴지는 생명력
	불확정성	표현 매체	방석, 이불, 미닫이 벽체, 창문
		표현 방법	위치나 수량의 조절, 접어서 수납, 밀거나 접어서 올리는 문
		표현 특성	우연성, 비결정성, 가변성
공간 구성	집중적 공간 구성	표현 매체	비갈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이어지는 공간구성, 마루, 툇마루, 정자, 마당 등 전이공간
		표현 방법	프라이버시 조절, 공간의 리듬과 질서 형성
		표현 특성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성, 분리되면서도 유기적인 연속성
	중복과 중첩	표현 매체	벽, 개구부, 중간영역
		표현 방법	개폐여부, 시각적 관계
		표현 특성	투명하고 개방적인 느낌, 공간의 깊이감, 풍요로움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의 상생 및 순응	표현 매체	창호, 정자
		표현 방법	자연과의 상생
		표현 특성	자연과의 일체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각	표현 매체	창호, 비어있는 마당
		표현 방법	외부환경을 실내에서 관망
		표현 특성	자연으로 귀의

4. 연구자의 작품

4-1. 작품에 접목된 한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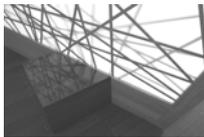
3장에서 도출한 한국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

은 3가지 개념을 작품에 접목했다. 전통공간의 형태적 특성에서 도출한 탈기교성, 비대칭적 구성, 불확정적 특성은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이공간을 통한 점층적 공간구성과 중복 및 중첩의 특성은 가변적 구조를 활용한 구조와 형태의 가변성으로,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자연과의 상생 및 순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각의 특성은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가구 스스로 공간을 형성하는 가구의 실현으로 접목했다.

4-1-1.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아름다움

Bench with Screen 1, 2, 3는 크게 좌판부분인 벤치와, 영역을 구분하고 형성해 주기 위한 파티션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는데, 의도적이고 조형적인 기교를 철저히 지양한 채 인체 및 필요치수와 재료의 특성만으로 사이즈와 형태를 도출했다. 벤치의 폭 2,400, 1,600, 1,400mm는 인체치수와 각 사양에 접목할 스크린의 숫자 및 그에 따른 비례만을 적용한 결과이다.

각 벤치에 접목된 스크린의 패턴은 한국의 전통문양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중첩, 중복, 그리고 우리 전통공간의 벽체가 가지고 있는 반투명한 특성 등을 키워드를 하여 은유적으로 해석한 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결과적으로 파티션에 활용한 패턴은 나뭇가지를 관찰한 결과를 접목한 것으로, 표현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교하거나 세련되지 않도록 했다.



[그림 8]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형태



[그림 9] 나뭇가지 관찰을 통해 은유적으로 도출해 낸 중첩과 중복의 이미지를 파티션의 패턴으로 접목한 사례



[그림 10] 빛을 분산시켜 실내를 부드럽게 만들었던 특성을 접목한 사례

공간적으로는, 강한 자연채광의 빛을 극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게 일부 걸러 분산시켜서 실내를 부드럽게 만들어 냈던 우리 전통공간의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 표현했다.

4-1-2. 가변적 구조와 형태

전통공간에서 사용되었던 이불과 방석이 그러했듯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과 용도에 의해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추구했다. 벤치와 스크린은 모두 구조적으로 쉽게 분해되고 재조합될 수

있고, 특별히 전면과 배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개의 가구 및 파티션의 어떻게 조합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간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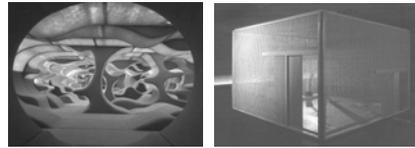
개방적인 실내공간에 놓여있더라도 1,600mm를 넘는 높이와 2,400mm폭의 파티션이 제공하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스크린들이 겹쳐 보이는 틈 사이를 통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을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림 11] 가변적 구조(좌), 다양한 조합으로 차별화된 공간분위기 창출(우)

4-1-3. 공간을 형성하는 가구

가구와 공간 사이의 기능적 경계를 뛰어넘어 공간을 스스로 구획하거나 창조하는 개념의 가구를 창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개념을 표출하는 가구의 사례는 가구디자인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연구자에게 특히 영향을 미쳤던 작품은 팬톤의 판타지 랜스케이프와 우치다의 다실이었다.



[그림 12] 팬톤의 판타지 랜스케이프와 우치다의 다실



[그림 13] 가구 스스로 공간을 형성하는 사례

이들 모두 가구 스스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작품과 연구자의 작품 사이에는 중요한 개념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팬톤의 판타지 랜스케이프와 우치다의 다실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해 들어가는 내향적 공간이라면 연구자의 작품은 내부에서 외부로 열려있는 외향적 공간이어야 했다. 두 작품에서 내부공간의 디테일이 중요했다면 연구자의 작품은 작품이 놓여있는 공간의 주변 환경과 상황이 중요했다. 특히 다실과의 차이점이 흥미로운데, 한국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실내에서 관망하고자 했다면 일본은 축경(縮景)이라

는 수법을 사용하여 축소되고 상징화된 초자연적인 공간(성문출판사 편집부, 1996)을 실내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표 3] 전통공간 사례를 통해 도출한 한국성과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한국성

전통공간 사례를 통해 도출한 한국성		
형태적 특성	공간의 구성	환경과의 관계
탈기교성, 비대칭적 구성, 불확정성	전이공간을 통한 점층적 공간구성, 중복과 중첩	자연과의 상생 및 순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각
↓	↓	↓
연구자의 작품에 접목한 한국성		
형태적 특성	공간의 구성	환경과의 관계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아름다움	가변적 구조와 형태	공간을 형성하는 가구

4-2. 진행과정

4-1.장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개념을 지향하며, 아이디어 발상, 모델링, 렌더링을 거쳐 1:1 작품을 제작했으며, 내용을 아래 [표 4]와 [표 5]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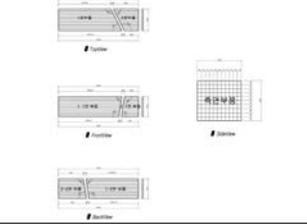
[표 4] 작품진행과정

	Bench with Screen 1	Bench with Screen 2	Bench with Screen 3
발상			
모델링			
렌더링			

4-3. 결과물

[표 5] 결과물

Bench with Screen 1		
결과물		
도면	스크린	
	벤치	
재료	벤치	walnut
	스크린	white oak, MDF, acrylic panel
사이즈	벤치	2400×380×400
	스크린	(좌):2400×1600 (우):1400×1700
Bench with Screen 2		
결과물		
도면	스크린	
	벤치	
재료	벤치	walnut
	스크린	white oak, MDF, acrylic panel
사이즈	벤치	1700×380×400
	스크린	1660×1800

Bench with Screen 3		
결과물		
도면	스크린	
	벤치	
재료	벤치	walnut
	스크린	white oak, MDF
사이즈	벤치	1700×380×400
	스크린	2100×1800

5. 결론; 요약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품을 사례로 하여 가구디자인에 표현된 한국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21세기의 시장구조는 유지보다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저변에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결코 변화하지 않는, 혹은 변할 수 없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가치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그 가치 중의 하나가 한국성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성의 표현이 하나의 문화로서 이해되기 위해서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바탕위에 뿌리 내려져,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후천적 가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한국성의 표현은 단순한 과거로서가 아니라 살아 지속돼 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즉 현재와 연관을 맺고 있을 경우에만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됨(이주혜, 2002)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상성을 지닌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를 가구디자인에 접목하는 작업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과거 한국성 추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가시적, 조형적 측면의 집중에서 벗어나, 한국적 공간 이미지에 나타났던 특징들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가구디자인에 적용했고 이를 다시 연구논문의 형식을 빌어 정리했음에 의미를 두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품 세 점을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며, 추후 사례의 범

위를 넓힌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적 디자인 정체성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의 모색과 실험이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에 대한 질문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본 연구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혁 (1997). 『한국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3)-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듯; 한국성담론의 비판적 분석』. 플러스.
- 김경재 (1999).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 3-8.
- 김정신 (1997). 한국 현대 종교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0, 3-14.
- 김진우 (2009). 「공간조형을 창출하는 가구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우 (2010). 공간적 가구 중에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6, 278.
- 박영순 외 (1999).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 박향섭 (1997). 「한국 현대건축의 양태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문출판사 편집부 (1996).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 안영배 (1988). 한국성의 재규명-한국 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구성수법, 건축과 환경.
- 유영희 (2005).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개념 추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5), 48-50.
- 윤정미 (2000). 「실내건축에서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외 (2007). 차경이론을 통해 본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기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2), 5-11.
- 이주혜 (2002).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성의 공간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4, 20-24.
- 이지연 (2000). 「한국전통 실내건축의 여허 공간의 개념과 결합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무웅 (1989). 『한국 전통공간의 공간구성과 공간의 계층적 질서』. 플러스.
- 최부득 (2001).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미술문화.